

김 성 복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 작품연구논문

집의 구조로 표현된 직선의 조합에 관한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김 지 영

집의 구조로 표현된 직선의 조합에 관한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성 복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김 지 영

인 준 서

김지영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예술은 인간의 삶 속에서 비로소 그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의 가치관을 작업에 반영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느낀 바를 창조적인 조형양식으로 표현해낸다.

본인의 조형적 사고는 모든 만물의 기본 형태인 기하요소들, 특히 직선을 조합하고 반복하면서 발견하게 된 하나의 단위 형태에서 비롯되어 본인이 생각하는 집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중심공간이며 자신 및 가족의 특성들이 드러나는 집은 본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되었고 본인의 의식을 지배하는 곳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복합적인 환경이자 동시에 여러 가지 형태적, 공간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여 작품의 소재로 삼아 형상화 하였다.

본고는 본인의 작품이 직선의 조합을 통해 ‘집’의 공간으로 형상화 되는 과정을 일상성과 주거공간에 연계하여 고찰하였고 선(線)이 갖는 상징적 표현과 반복이라는 표현기법을 통해 재현된 형태의 조형적 특성을 서술함으로써 표현적인 부분에서 보다 창조적인 작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서론에서는 본인작업에 대한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2장 본론에서는 본인작업의 근간이 된 일상에서의 반복성과 본인의 일상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공간인 주거공간과 연계하여 고찰해 보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직선의 상징성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반복이라는 표현 기법을 통해 재현된 형태의 조형적 측면을 서술하였으며 마지막에는 개별적인 작품 분석을 하였다.

3장 결론에서는 논문의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하였고 앞으로의 작업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II. 본 론	2
1. 작품의 형성 배경.....	2
1) 일상에서의 반복성	2
2) 주거공간으로서의 집의 의미.....	3
2. 조형적 특성	4
1) 선(線)의 상징적 표현.....	4
2) 직선의 조합에 의한 반복적 표현.....	6
3) 집의 구조로 표현된 형태적 공간의 특징	8
3. 작품분석	11
III. 결 론.....	23

참고문헌

ABSTRACT

작품 목록

- 【작품 1】 <직선의 조합 I>, 아크릴, 300 X 300 X 30mm 2007.....11
- 【작품 2】 <직선의 조합 II>, 아크릴, 300 X 300 X 20mm 2007..... 13
- 【작품 3】 <직선의 조합 III>, 아크릴, 200 X 300 X 10mm 2007.....16
- 【작품 4】 <직선의 조합 - 그리고 생성되다>, 철, 1500 X 1500 X 2250mm
(가변설치), 2007.....18
- 【작품 5】 <직선의 조합 - 그리고 생성되다>, 철, 1500 X 1500 X 2250mm
(가변설치), 2007.....20
- 【작품 6】 <직선의 조합 - 그리고 생성되다>, 철, 1500 X 1500 X 2250mm
(가변설치), 2007.....22

I. 서론

예술이 삶 자체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겠지만 인간의 삶과 예술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은 본인의 일상에서 소재를 찾아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결혼 후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작업의 소재 또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단조로운 일상과 반복되는 행동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본인의 의식을 지배하게 된 ‘집’이라는 공간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그 진지한 성찰은 본인이 존재하여야만 하는 공간인 ‘집의 이미지’로 구체화 되었다.

본인은 직선의 조합과 그 조합의 반복으로 구성되어진 닫힌 공간이면서 동시에 열린 공간인 집의 형태를 제작하면서 본인의 반복된 일상에 대한 물음과 함께 주거공간으로서의 집이 갖는 의미들에 대해 생각하였다. 그 출발점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하요소에서 찾았고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직선을 조합하고 반복하여 생성된 단위 형태를 활용하여 집의 이미지를 지닌 작품들을 표현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작품을 조형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본인작품의 형성 배경이 된 일상에서의 반복성과 주거공간으로서의 집의 의미를 문헌을 통해 고찰하였다. 둘째, 본인 작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線)의 상징적 표현과 반복적 표현기법에 대해 서술하고 집의 구조로 표현된 작품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접근 방법으로 본인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작업의 의미와 근원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며 앞으로 전개해 나갈 본인의 작업방향 또한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II. 본 론

1. 작품의 형성 배경

1) 일상에서의 반복성

‘일상’이란 넓게는 인간생활의 모든 주변 환경과 그 안에서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본고에서는 그 범위를 좁혀 본인 작업의 근간이 되는 ‘일상의 반복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상적인 삶에서 ‘일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학적으로 볼 때 ‘일상’(Alltag)이란 개념은 그리스어 ‘카테메란’(catemeran)과 라틴어 ‘코티디아누스’(cotidianus)로부터 유래하는데, 그 뜻은 매일 매일의 ‘반복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것은 한문의 ‘日常’(일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늘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뜻한다. ‘다람쥐 쳇바퀴 돈다.’라는 우리의 속담도 바로 이러한 일상의 반복적인 성격을 의미한다.¹⁾

이처럼 일상이란 매일 매일의 ‘되풀이 되는 삶’이다. 따라서 진기하고 특별한 ‘사건’들은 일상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어떠한 ‘사건’들도 일상의 바탕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에 바로 일상이 갖는 이중적 성격이 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처럼 피상적인 것도 없다. 그것은 반복적이고 진부하며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것보다 더 이상 심오한 것도 없다. 그것은 실존이며, 결코 이론적으로는 기재되지 않는 적나라한 ‘삶’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바꾸기 힘든 것이다.²⁾

1) 최종욱 저, 「일상에서의 철학」, 서울:지와 사랑, 2000, p.171

2) 미셸 마페졸리 앙리 르페브르 외 저, 「일상에서의 사회학」, 박재환 역,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편 (한

반복이란 ‘되풀이’이고 이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여서 본인은 일상생활 속의 반복성에 한정을 두었고, 본인의 반복적 일상과 연계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직선을 반복적으로 조합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일상의 의미와 근원에 대해 새로운 각도로 인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반복되는 일상 안에 삶의 질서와 가치가 내재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2) 주거공간으로서의 집의 의미

주거공간은 인간의 삶이 경험되는 가장 기본적인 장(場)으로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그에 따른 거주자의 가치관이나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물리적이고도 정신적인 문화의 담지체³⁾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는 사회문화적 산물로서 인간은 주거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행동양식과 가치관을 통해 의미와 상징체계를 형성하고 이 주거와 관련된 행동양식과 의식은 그러므로 역사적, 지리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주거공간을 우리는 집 또는 주택이라 부르고, 둘 다 단순한 보호(保護)처 이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쉼터(Shelter)와 의미의 층위가 다르다. 쉼터가 단순히 보호처나 은닉처를 의미하는 불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 ‘집’은 물리적인 구조물이 아닐 수도 있으며, 건설은 ‘집’을 물리적 주택으로 변환시키는 것으로 쉼터의 개념을 이미 뛰어 넘어 다른 개념으로 해석되는 것이다.⁴⁾

올아카데미, 1994), p.24-25

3) 김정미(2003), ‘아파트 주거 문화의 실태와 변화 : 평촌 신도시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4) 정진우(2004), ‘근대 이후 주거 공간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특성 및 유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17

흔히 ‘우리 집’이라고 말할 때 그것의 의미는 건축적 환경으로서의 주택(house)과 심리적, 정서적 장소로서의 주거(home)를 동시에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주거는 건축 환경의 한 형태이다. 이때 환경은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건축 환경의 특정형태인 주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처로서의 주택이 아니라 동거자 또는 가족, 이웃, 지역사회 및 주변의 모든 환경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⁵⁾ 주택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의미하지만 장소인 주거(home)는 분명히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⁶⁾ 그것은 장소이면서 동시에 인간과 환경과의 심리적, 체험적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여 흔히 ‘내 마음이 있는 곳’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장소로서의 주거(home)는 나의 독자성을 표현해주는 장소 등으로 설명되며, 또한 나를 상징해주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집은 본인을 표현함에 있어 가장 적절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2. 조형적 특성

1) 선(線)의 상징적 표현

선(線)이란 “그어놓은 줄이나 금, 물체와 물체를 경계 짓는 곳”⁷⁾을 뜻한다. 선은 가장 오래된 예술의 매개체로, 선으로 사물의 형태의 특성이나 성격을 단순하게 또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고, 눈은 사물의 형태를

5) 윤봉자 공저, 「세계의 주거문화」, 신광출판사, 2000, p.1-2

6) Altman, I. 이경희 김대년 외 공역 「주거와 환경」, 서울, 문진당, 1985, p.77

7) 이희승, <국어대사전>민중서림, 1979, p.1577

드러내주는 선에 의해 대상을 감지하게 되며, 인간은 대상을 본 후 그것을 곧 생각으로 옮겨 하나의 이미지(image)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기하학적으로 생각할 때 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다. 선은 점이 움직여 나간 흔적, 다시 말해 점이 만들어낸 소산이다.”⁸⁾ 선은 수많은 점들이 만들어낸 줄로 예술, 특히 미술작업의 기본요소이며 우리는 몇 개의 선만으로도 사물의 형태나 성격, 인간의 심리나 시간성 까지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선은 동적인 성향이 짙은 요소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운동방향을 나타낼 수 있다.

특히, 선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적합한 요소로 작용한다. 즉 자립적인 시각대상인 동시에 무언가를 표상하는 이중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선의 표면적 특색으로는 흥분, 고요, 위엄, 분노, 행복 등 인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언어적 의미로 ‘선 자체가 내포하는 상징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감정에 따라 자유롭게 변화 될 수 있는 선은 작가의 선택적 표현에 따라 여러 가지 표정으로 연출될 수 있다. 선은 무엇인가를 모방하는 능력과 함께 그 자체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사물의 형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세계를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일반적으로 작가의 감정에 따라 선의 느낌은 다르게 표현된다. 동양에서는 시(詩), 서(書), 화(畫)를 하나로 간주하여 외부적 묘사나 대상물의 선적 표현에도 내적 가치를 결부시켰고 서양의 경우에서도 선(線)으로 인간의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삶, 또는 작가의 심리를 표현하였다.⁹⁾

선은 직선과 곡선 등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본인이 사용한 선은 무한한 움직임의 가능성을 지닌 가장 간결한 직선이다. 본인은 이러한 직선을 규칙적으로 반복 나열하여 일상에서의 반복성을 나타내고자 하였고 직선의 조합으로 생성

8) 칸딘스키, 차봉희 역, 「점, 선, 면: 회화적인 요소의 분석을 위하여」, 칸딘스키 예술론2, 열화당, 1997, p.109

9) 류현주(2005), ‘곡선적 구성을 이용한 일상성 표현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10-11

된 단위형태를 기초로 일상생활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집을 형상화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상 속에서 가치를 찾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일상의 패턴들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2) 직선의 조합에 의한 반복적 표현

사전적으로 ‘반복’이란 같은 일을 되풀이 한다는 의미로 평범하고 비개성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술에서 ‘반복’이란 먼저 기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규칙적인 이미지의 반복은 리듬감을 지닌 추상적 효과를 나타내고 화면 전체에서의 반복은 특정한 이미지가 아닌 전면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반복되는 작품은 관람자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관람자는 규칙적으로 나열된 동일한 형태들을 번갈아 보거나 한 형태와 그 옆에 병치된 다른 형태 사이의 빈 공간들에 시선을 주게 된다. 그러다 시선이 어느 한 점에 고정될 때 작가의 의도와 반복의 의미는 받아들여지므로 반복의 기법은 추상성뿐 만 아니라 도상학적 의미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반복은 지루하면서도 진부하게 보일 수 있으나 질서에 의한 배열이 규칙적인 리듬감을 만들어 내면서 시각적인 의미를 유발시킨다. 즉 구상적인 이미지도 반복하면 추상적으로 인지되는 것이다.¹⁰⁾

반복의 흐름은 유사한 모양이나 선, 색의 반복 등에서 보여 진다. 이 중 선의 반복에 의해 나타나는 공간은 시작도 끝도 없는 열린 공간으로써 단순히 제한된 공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공간이 되고 수많은 단위형태들을 만들어 낸다. 단위 형태를 이용한 작업은 개체 상호간의 비례와 균형, 조화 등의 상호 보완적인 구성으로 반복과 중첩에 따라 다양한 조형 표현이 가능

10)최영아(2007), ‘Louis I. Kahn의 건축에 나타난 형태반복의 의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p.161

하며 결합, 분해 등을 통하여 전체를 구성하고 연속, 규칙적인 질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단위 형태들의 반복은 좁은 의미에서 형태, 크기, 색채, 질감 등의 모든 시각 요소들이 일률적으로 정확히 같아야 한다는 뜻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단위 형태간의 색채나 질감만이 같아도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단위 형태는 서로의 유사성이나 형태의 점이(漸移) 등에 의하여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위 형태로서 집단화 될 수 없다.¹¹⁾ 이러한 반복을 통해 시각적 통일성이 표현되며 반복된 구성은 전체를 집합체로 보이게 한다. 공간에서의 반복은 ‘획일성 반복’과 ‘변화성 반복’으로 나뉘는데 한 단위의 ‘획일성 반복’은 강한 통일성, 명백하고 강조된 효과, 그리고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순열로 표현된다. 이러한 ‘획일성 반복’은 변화, 대비, 대립성이 없기 때문에 단조롭다. 이와 달리 ‘변화성 반복’은 자연 질서의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로 색채, 질감, 형태가 다른 하나 이상의 단위를 반복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의 반복은 우선 시각적인 면에서 화면에 리듬 또는 연속성을 부여함으로써 시간적 요소를 개입시키고, 동시에 화면이 외부의 공간으로 무한히 지속될 것 같은 확장효과를 가져온다. 반복적 형태는 화면의 표면을 따라 시각을 이동시켜 그림의 평면성을 주지시키는 역할도 하고, 한편으로는 심리적, 정신적인 면에서 제작자나 보는 이로 하여금 무아의 경지에 접근하게 하며, 구상적인 형태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형태가 가진 메시지를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반복 작업은 수많은 작가들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작가에 따라 반복하는 행위가 갖는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 본인의 경우, 작품에 사용된 직선의 반복

11) W. 우시우스, 「입체디자인론」, 유한태(역), 서울:미진사, 1981, p.14

은 본인의 일상, 감정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는 이들에게 그러한 느낌을 전달하고 싶어 반복의 작업을 진행했다. 다시 말해 본인에게 있어서 직선의 조합에 의한 시각적인 반복은 곧 일상에서의 반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집을 작품화하는 것은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표현한 결과물이며 한편으로는 매일 매일 반복되는 순환적 삶의 과정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의 반복과 순환의 과정은 작품의 형태 속 이미지의 반복으로 드러난다. 반복을 통한 직선의 조합은 되풀이되는 본인의 일상을 표출한 것이며 작품에 나타나는 다양한 단위 형태들은 반복된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와 일탈을 꿈꾸는 자아의 모습이기도 하다. 끝없이 되풀이 되는 매일 매일의 반복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작지만 점진적인 변화와 자기반성을 통해 새로운 내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 또한 이 과정은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본인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3) 집의 구조로 표현된 형태적 공간의 특징

본인의 작업은 우연한 효과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다. 바로 컴퓨터로 그린 도안을 정확히 재현해내는 작업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작품의 형태는 장식성이 배제된 단순한 기하 형태로 강한 시각적 효과를 준다. 비록 대상을 설명하는 객관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그 간결함 속에는 분명 함축되고 농축된 힘이 들어 있다.

본인의 작업은 직선의 조합으로 단위의 형태를 만들었고 이 단위의 형태들로 집의 모양을 구성하였다. 단위 형태들의 반복적 변화는 반복을 더 자극하여 기하학적 질서를 형성시켰고 즉각적이고 전혀 다른 변화 또한 가능케

하여 서로 다른 시각적 형태와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본인은 이러한 기하학적 직선이 질서 있게 되풀이되는 반복의 원리를 이용하여 일상에서의 반복성을 표현하려 하였고 집의 형태로 구체화 시켰다.

‘집’은 인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로서 인간 생활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공간이다. 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보호하는 곳으로 인간의 삶을 위한 공간, 사회생활에서 오는 긴장을 해소 해주는 안식처로서의 공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집은 생명의 근원인 동시에 감성을 기르고 처음 경험하는 세계이며 생의 목표 설정과 외부 활동을 향한 출발점인 것이다.¹²⁾ 또한 집이라는 공간은 그 공간을 대하는 사용자의 인식도 암시하고 있다. 집안에서의 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움직임은 주로 평면적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심리적인 생활과 공간과의 대응을 다룰 때에는 공간의 높이, 공간의 마감, 색채와 공간 내의 동선관계 등이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이 집이라는 공간을 이용한다 함은 매우 복합적인 문제를 포함하는데, 이는 일상적인 가족들의 행동과 집의 공간이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뿐만 아니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간의 물리적 요소에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¹³⁾ 집이라는 공간에서 거주자의 일상적인 활동의 패턴은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요소들은 공간적 패턴을 생산하고 그러한 공간적 패턴에 의해 인간의 활동은 반사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다.¹⁴⁾ 다시 말해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이자 사물들을 통해 자신 및 가족의 특성들이 드러나는 집은 인간의 삶의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복합적인 환경이자 동시에 여러 가지 형태적 공간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¹⁵⁾

12) 이재선, 「우리의 문학은 어디서 왔는가?」, 소설문학사, 1986

13) 서일영(2005), “대한민국주거평등공화국’전 작품론’,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6-7

14) 정진우(2004), ‘근대 이후 주거 공간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특성 및 유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17

15) 서일영(2005), “대한민국주거평등공화국’전 작품론’,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이러한 집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은 본인이 작품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한 소재가 되어 주었다. 작품 4, 5, 6에서 보여주듯이 본인이 만들어낸 집의 구조는 외부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벽과 지붕이 있는 기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안정된 공간으로서의 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인의 집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이 조합되고 반복되어 만들어진 벽과 지붕은 선과 선사이의 공간으로 인해 안전한 공간의 집의 모습에서 더 나아가 폐쇄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개방되어 있다. 이는 집의 내적인 ‘안전한 공간’과 외적인 ‘자유로운 공간’의 두 측면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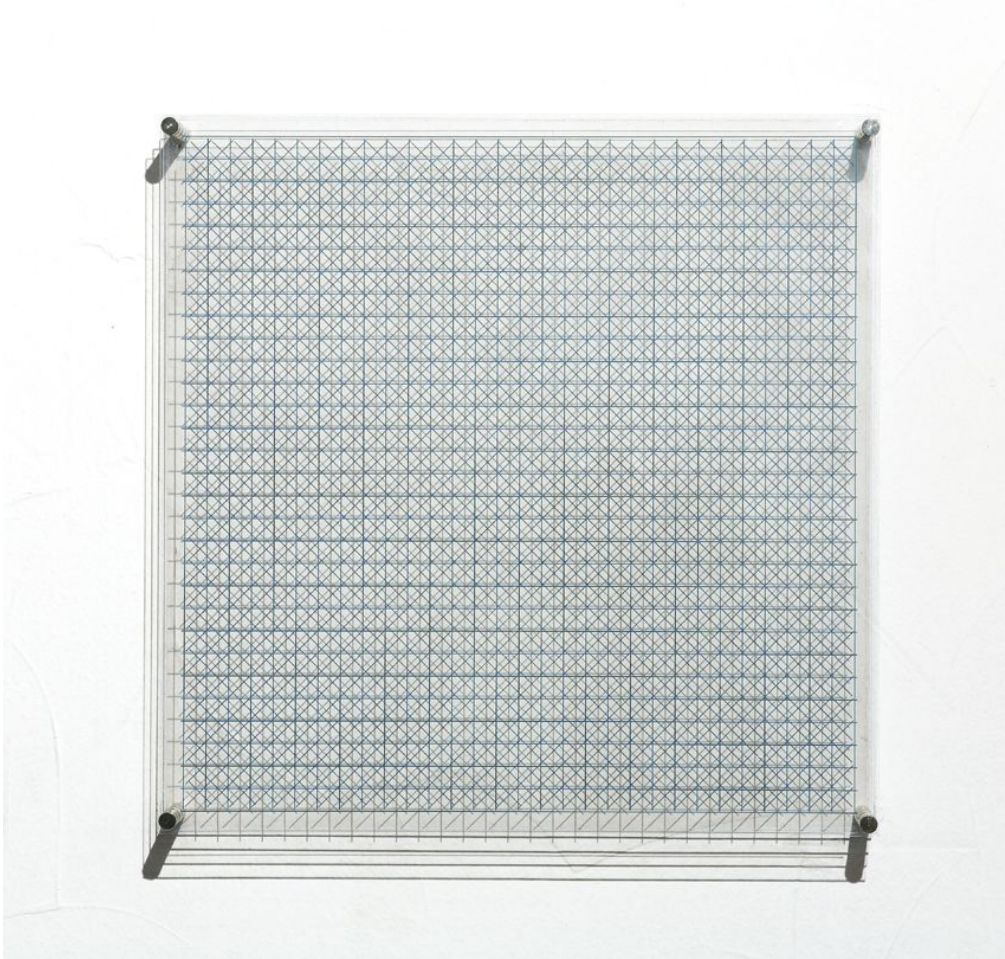
집은 방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공간의 패턴이며, 공간이 어떻게 모이고 연결되는가, 행위들이 어떻게 집합되고 분산되는가, 또한 공간들이 어떻게 상호교호 되는가가 그 집의 특성을 결정¹⁶⁾하듯이 본인의 작품은 직선과 직선이 조합되며 만들어낸 공간으로 인해 단위형태가 생성되었고 패턴화 된 단위형태들에 심리적인 시선 집중의 효과를 주어 규칙적이고 정형화 되어 있어 자칫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작품에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집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반복된 일상의 이미지를 직선을 조합하고 반복하여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그와 함께 외부와 내부의 공간을 소통시켜 이중적 공간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집을 표현하는 과정은 반복된 일상생활로부터의 일탈을 시도하여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이며 자신의 존재를 체감하고 싶은 열망을 담은 것이기도 하다. 즉, 본인의 의지로 형성된 집을 통해 본인만의 공간들을 만들어 감으로써 반복된 일상에서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가 표출되어 있는 것이다.

p.6

16) 정진우(2004), ‘근대 이후 주거 공간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특성 및 유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17-18

3. 작품분석



【작품 1】 직선의 조합 I , 아크릴, 300X300X30mm, 2007

【작품 1】 직선의 조합 I

크 기 : 300 X 300 X 3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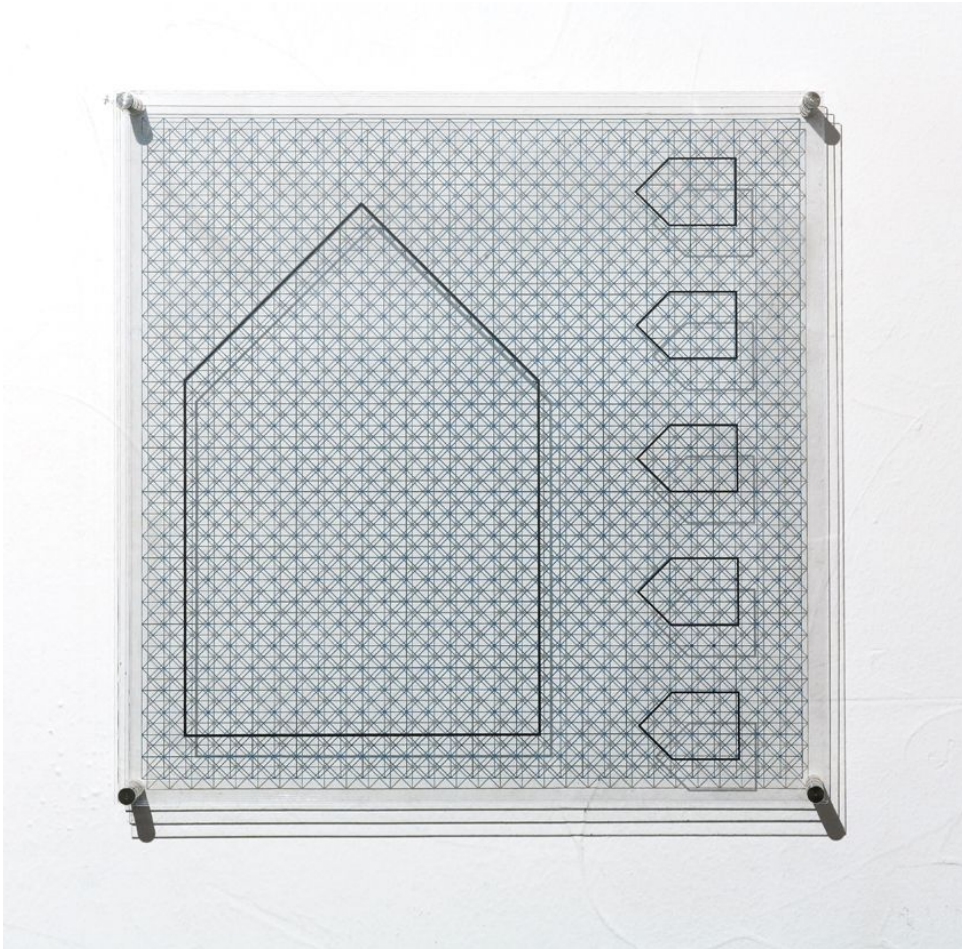
재 료 : 아크릴

제작년도 : 2007년

제작방법 : 정확한 직선 표현을 위해 컴퓨터로 도안 작업을 한 후 아크릴판에 실크스크린 하였다.

본인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직선을 가장 단순 명료하게 반복의 원리를 이용하여 수직, 수평, 사선의 대칭선들을 상하 좌우로 확장시켜 각기 다른 투명 아크릴판에 실크스크린 하였다. 본인은 각각의 직선들이 서로 교차하고 조합되어 보이도록 하기위해 투명아크릴을 사용하여 중첩시키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판에 전사된 직선들은 마치 하나의 화면에 표현된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가져와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단위 형태들이 만들어지고 반복되어 나타났다.

본인은 일률적인 선들을 규칙적으로 나열함으로써 반복되는 본인의 일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표면상으로는 동일성을 자아내지만 그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단위형태들을 통해 반복된 일상의 순환구조 안에서 작은 변화를 희망하는 자아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2】 직선의 조합 Ⅱ, 아크릴, 300 X 300 X 20mm 2007

【작품 2】 직선의 조합 II

크 기 : 300 X 300 X 20mm

재 료 : 아크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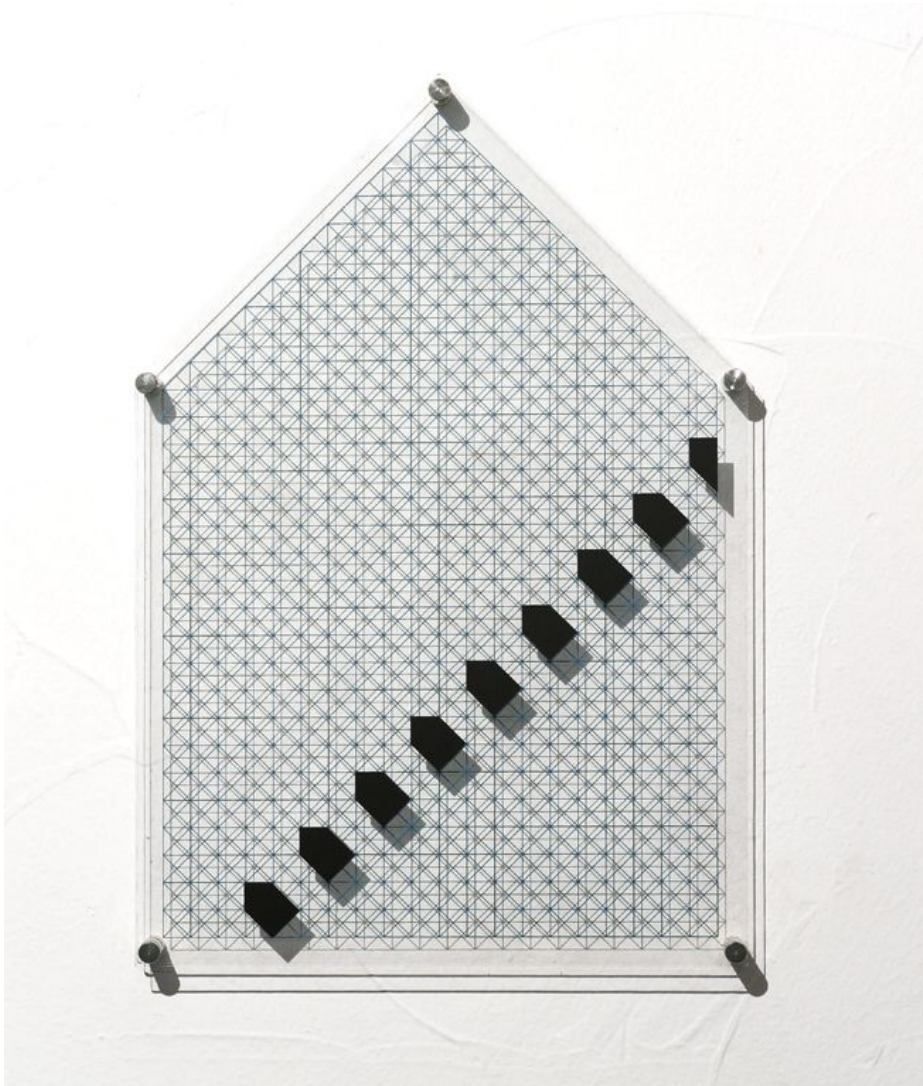
제작년도 : 2007년

제작방법 : 정확한 직선 표현을 위해 컴퓨터로 도안 작업을 한 후 아크릴판에 실크스크린 하였다.

본인은 직선의 조합으로 생성된 다양한 단위 형태들에서 본인의 내면심리가 반영된 형태를 추출하였다.

예술가들이 본인만의 시각으로 대상을 표현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보이는 그대로를 그려내는 구상작업에서도 화가의 주관적 관점은 드러나기 때문이다.

본인은 일상의 사물에서 보여 지는 직선을 통해 본인만의 시점을 만들려고 하였고 그 결과로 하나의 단위 형태를 발견하였으며 이를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본인이 택한 단위 형태는 본인이 생각하는 집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이자 사물들을 통해 자신 및 가족의 특성들이 드러나는 집은 본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되었고 본인의 의식을 지배하는 곳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복합적인 환경이자 동시에 여러 가지 형태적 공간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여 작품의 소재로 삼아 형상화 하였다.



【작품 3】 직선의 조합 III, 아크릴, 200×300×10mm 2007

【작품 3】 직선의 조합 III

크 기 : 300 X 300 X 20mm

재 료 : 아크릴

제작년도 : 2007년

제작방법 : 정확한 직선 표현을 위해 컴퓨터로 도안 작업을 한 후 아크릴판에 실크스크린 하였다.

<작품 2>에서 발견한 단위 형태를 토대로 직선들을 조합하였고 그 안에서 다시 단위 형태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작품 1>에서 느껴지는 단조로움은 감소되었고 새로운 조형적 형태가 표현되어 졌다.

작품에서 보여지는 단위형태의 반복형상은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써 작품에 시각적 효과를 주고 리듬감을 준다.



【작품 4】 직선의 조합 - 그리고 생성되다, 철, 1500X1500X2250mm
(가변설치), 2007

【작품 4】 직선의 조합 - 그리고 생성되다

크 기 : 1500 X 1500 X 2250mm, (가변설치)

재 료 : 철

제작년도 : 2007년

제작방법 : 정확한 직선 표현을 위해 컴퓨터로 도안 작업을 하였고 이
도안으로 레이저 철판 커팅을 하였다.

조합한 직선들을 평면에서 입체로 옮겨온 것이며 본인이 택한 단위 형태를 기초로 제작하였다. 기본형식은 앞의 작품과 동일하지만 입체로 전이된, 조합된 직선들은 각 면들이 서로 투과되어 평면에서 보다 더 강한 시각적 효과를 준다. 그리고 복잡하지만 규칙적이고 단순한 반복의 원리는 질서 있고 안정되어 보인다.

본인이 만들어낸 집의 구조는 외부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벽과 지붕이 있는 기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안정된 공간으로서의 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인의 집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이 조합되고 반복되어 만들어진 벽과 지붕은 선과 선사이의 공간으로 인해 안전한 공간의 집의 모습에서 더 나아가 폐쇄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개방되어 있다. 그 결과 집의 내적인 안전한 공간과 외적인 자유로운 공간의 두 측면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단위형태들이 서로 교차되면서 만들어낸 시각효과는 작품에 변화를 준다.



【작품 5】 직선의 조합 - 그리고 생성되다, 철, 1500 X 1500 X 2250mm
(가변설치), 2007

【작품 5】 직선의 조합 - 그리고 생성되다

크 기 : 1500 X 1500 X 2250mm, (가변설치)

재 료 : 철

제작년도 : 2007년

제작방법 : 정확한 직선 표현을 위해 컴퓨터로 도안 작업을 하였고 이
도안으로 레이저 철판 커팅을 하였다.

<작품4>와 동일한 기본형식에 단위 형태를 다시 한 번 반복시켜 안정적인
작품에 변화를 주었고 좀 더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주었다.

집은 방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공간의 패턴이며, 공간이 어떻게 모이고
연결되는가, 행위들이 어떻게 집합되고 분산되는가, 또한 공간들이 어떻게 상
호교호 되는가가 그 집의 특성을 결정하듯이 본인의 작품은 직선과 직선이 조
합되며 만들어낸 공간으로 인해 단위형태가 생성되었고 패턴화 된 단위형태들
에 심리적인 시선 집중의 효과를 주어 규칙적이고 정형화 되어 있어 자칫 지
루해 보일 수 있는 작품에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작품 6】 직선의 조합 - 그리고 생성되다, 철, 1500 X 1500 X 2250mm
(가변설치), 2007

【작품 6】 직선의 조합 - 그리고 생성되다

크 기 : 1500 X 1500 X 2250mm, (가변설치)

재 료 : 철

제작년도 : 2007년

제작방법 : 정확한 직선 표현을 위해 컴퓨터로 도안 작업을 하였고 이
도안으로 레이저 철판 커팅을 하였다.

<작품5>와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동일한 형태의 입체를 제작하여 설치함으로써 직선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입체물 또한 나의 단위요소가 되어 평면이 아닌 공간에서 반복한다. 이러한 방식은 설치방법에 따라 작품에 변화를 주어 서로 다른 시각적 효과를 준다.

Ⅲ. 결 론

작가의 눈은 자기 자신의 내적 세계를 보고 있어야 하며, 귀는 내적 필연성에 귀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작품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되어진다. 작가에게 작품은 작가 본연의 내면세계가 투영되어 있는 것이므로 작품 활동은 내면세계의 표출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 모든 것을 녹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반복적인 일상생활의 장이되는 집의 구조를 통해 본인의 내면세계를 보여주려 하였다. 이를 위해 직선이라는 단위요소를 이용해 조합하고 반복하여 집의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그 안에서 형성된 반복의 구조를 본인의 일상과 접목시켜 표현하려 하였다. 선은 모든 작업에 있어서 기본 단위요소이며 어느 곳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본인은 이러한 선을 조합하고 반복하여 벽과 지붕을 만들어 안전한 공간의 집의 모습에서 더 나아가 폐쇄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개방되어 있고, 집의 내적인 안전한 공간과 외적인 자유로운 공간의 집으로 재구성 하였다.

본고에서는 직선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의 모습을 작품으로 표현하기위해 집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상에서의 반복성에 대해 살펴보았고 선의 상징적 표현과 반복적 표현을 연구하여 본인작품의 조형적 특징들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작업과정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반복적 일상이 바로 삶의 근원이며 본질임을 깨닫게 하였다. 진리는 항상 일상 속에, 자연의 섭리 속에 있는 것처럼.

본 연구는 본인이 앞으로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새로운 시발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본인은 비로소 본인의 관점을 체계화 시키고 폭넓은 인식과 사고를 가지고 작업에 임해야 함을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W. 우시우스, 「입체디자인론」, 유한태(역), 서울:미진사, 1981.
- 미셸 마페졸리 앙리 르페브르 외 저, 「일상에서의 사회학」 한올아카데미, 1994.
- 로버트 앳킨스, 현대미술의 개념풀이, 시공사, 1994.
- 칸딘스키, 차봉희 역, 「점, 선, 면: 회화적인 요소의 분석을 위하여」
칸딘스키 예술론2, 열화당, 1997.
- 이재선, 「우리의 문학은 어디서 왔는가?」, 소설문학사, 1986.
- 윤봉자 공저, 「세계의 주거문화」, 신광출판사, 2000.
- Altman, I. 이경희 김대년 외 공역 「주거와 환경」, 서울, 문진당, 1985,

<학술지, 논문>

- 이창수, '한국 근대사에 나타난 집 이미지 연구',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0.
- 최영아, 'Louis I. Kahn의 건축에 나타난 형태반복의 의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7.
- 정진우, '근대 이후 주거 공간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특성 및 유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4.
- 서일영, '대한민국주거평등공화국'전 작품론',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5.
- 김정미, '아파트 주거 문화의 실태와 변화 : 평촌 신도시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3.
- 류현주, '곡선적 구성을 이용한 일상성 표현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5.

ABSTRACT

Study on the Compounding of Straight Line which is expressed
with House Structure
-Centering around My Work-

Kim, Ji Young
Departmen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Art has the meaning for the first time in human life. So, artists reflect the sense of value of society that they, themselves belong to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and express what they experienced and felt in own life with creative plastic style.

My plastic thinking was expressed with house form that I think by originating from geometrical elements to be basic form of all things, especially, one unit form that I came to discover while compounding and repeating straight line.

House which is central space that daily life is made and that features of oneself and family are revealed became the most important space in my life, and it is complex environment to have various meanings and it has various formal and spatial diversity as a place to rule over my consciousness. Thus, I made it into form by making it as material or work.

In this thesis, I studied the course that my work is made into form as house space through compounding of straight line by connecting

with everyday nature and dwelling space, and described plastic feature of form reproduced through symbolical expression that line has and expression technique to be repetition. By doing that, I tried to prepare momentum to advance to more creative work in expressive part.

This thesis is composed of total 3 chapters centering around my work.

In the introduction of chapter 1, I presented the goal and method of study for my work.

In the main discourse of chapter 2, I tried to study by connecting repetitious nature in routine which became the basis of my work and dwelling space to be the space to be stuck to my routine, and described the symbolical nature of straight line chosen for expressing this. And, I described the plastic side of form reproduced through expression technique to be repetition. And, lastly, I made individual work analysis.

In the conclusion of chapter 3, I arranged the contents of thesis once again, and tried to present future work direction.